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4호 【루계 제24507호】 주체103(2014)년 4월 4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 공업 및 농업상,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몽정부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이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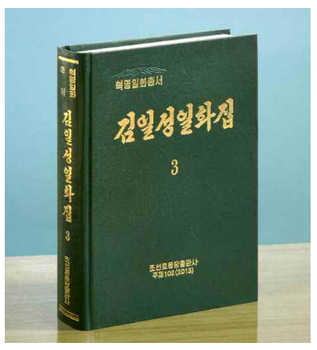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대표단 단장인 웨. 웨. 그리슈꼬브제1비서가 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3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3권을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주체21(1932)년 4월부터 주체25(1936)년 3월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일화들이 4개 장으로 구분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제9장 《항일대전의 포성》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토기점골등판에 터져오른 환호성》, 《소영자령에 울린 총성》 등의 일화들이 편집되여있다.

《독립군병사들의 탄복》, 《어머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 《산중의 귀인》, 《독안에 든 쥐》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만원정의 나날에 남기신 이야기들과 그후 왕청지구에서 벌리신 혁명활동을 반영한 일화들이 수록되여있다.

제10장 《혁명의 사령부》에는 《로인들에게 안겨주신 힘》, 《배움의 첫걸음》, 《모범중대가 된 비결》을 비롯하여 소왕청으로 혁명의 사령부를 옮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고 유격대원들과 유격구인민들을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키우신 내용의 일화들이 담겨져있다.

《김성도에게 하신 문책》, 《구원된 장포리》, 《물어주신 도끼값》, 《마을사람들과 함께 드신 국수》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민생단》협의를 받은 유격대원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사실과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신 그이의 위인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제11장 《요영구의 아침》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요영구에서 유격구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사실들과 제1차 북만원정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수록되여있다.

절세위인께서 지니신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을 전하는 《채사령의 망막속에 비낀 모습》, 《북만땅에 울린 하모니카소리》, 《물심량면의 지원》 등도 편집되여있다.

제12장 《혁명의 위기를 타개하시여》에는 《다홍왜로 가신 사연》, 《묵살된 〈간부〉의 언사》, 《좌경망동분자들의 운명》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시기 위하여 다홍왜회의에서 좌경배타주의자들과 견결하게 투쟁하신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일화들이 서술되여있다.

《로흑산에서의 복수전》, 《북만땅에 울린 박격포소리》, 《말리거우에서의 매복전》 등 력사적인 제2차 북만원정의 나날에 빛나는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에로 이끄신 이야기들도 이 장에 반영되여있다.

도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훌륭한 교과서로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에 이바지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 씨뿌리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각지 농촌들의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쌀로써 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높은 정신력과 생산열의가 응당한 결실을 맺게 하자면 전국적으로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알곡재배면적을 늘여야 합니다.》

알곡재배면적을 늘여 식량문제를 푸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일찌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농촌의 놀고있는 땅과 곡식을 심어야 할 포전에서 비알곡작물을 재배하고있는것을 보시면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나라의 식량문제를 풀자면 새땅찾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알곡재배면적을 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오늘도 황해남도사람들은 토지정리된 취야벌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곡식을 심을수 있는 땅에 나무를 심고 전망대를 세운것을 보시고 준렬히 일깨워주신 주체89(2000)년 12월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조국을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였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길은 더 많은 곡식을 심어가꾸는데 있다.

알곡재배면적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총 알곡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정보당 수확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토의 거의 80%가 산림이고 인구 1인당 차례지는 부침땅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의 조건과 해가 갈수록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불어나고 자연피해가 심해져 식량사정이 긴장해지고있는 현실은 알곡재배면적을 늘여 식량을 자급자족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전선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우시여 전당, 전국, 전민이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신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한평한평의 모든 땅이 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터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벼와 강냉이재배면적을 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주요알곡작물은 벼와 강냉이이며 인민들의 주식도 밥과 국수이다. 이런 조건에서 벼와 강냉이를 위주로 심고 가꾸는것은 식량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촌들에서는 필지별번호와 면적이 기록된 지적도를 놓고 계획된 알곡재배면적과 현지실태를 포전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부족한 면적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계획된 부침땅면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온데 있다. 모든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이 모범을 본받아 지난 시기 큰물에 떠내려갔거나 패인 땅, 산사태로 매몰된 땅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시급히 환원복구하여야 한다.

곡식을 심을수 있는 땅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과수, 남새, 공예작물밭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적지를 찾아 알곡재배면적을 늘여야 한다. 물웅뎅이를 메우고 랭습지도 개량하며 논두렁에 콩을 심고 인수로에는 벼모를 낼수 있는 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워야 한다.

개간된 모든 간석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해지구의 개간된 간석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로고속에 마련된 우리 조국의 귀중한 재부이다. 개간된 간석지를 가지고있는 모든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간석지농사를 잘하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 관점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당장 농사를 할수 있는 준비를 빨리 갖추며 철을 놓치지 말고 곡식을 심어야 한다.

새땅을 적극 찾아 곡식을 심어야 한다.

한포기의 곡식이라도 더 심을 새땅을 적극 찾아 농사를 짓는것은 농업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전투과업이다. 새땅예비는 그 어느 농촌에나 다 있다. 지난 시기 많은 농장들에서의 교훈은 찾자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새땅이 보이기마련이며 찾을수록 나오는것이 새땅이라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결심하고 떨쳐나 논과 밭가운데 있는 건물들을 산기슭에 옮기며 필요없는 포전도로, 물길, 양수장을 없애고 논과 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돌각담을 들어내고 밭최뚝, 논밭머리를 정리하며 포전도로옆, 포전들사이의 빈땅도 일구어 곡식을 심어야 한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토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 좋은 방법이다. 시, 군들에서는 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림농복합경영을 대대적으로 조직전개하여 알곡생산도 늘이고 산들의 수림화도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에서는 농업성밖의 단위들에서 가지고있는 부침땅의 리용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보고 대상별로 알곡생산과제를 주어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성과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농촌들에서의 부침땅리용실태를 료해하고 벼와 강냉이를 재배할수 있는 땅을 모조리 조사한 기초우에서 벼, 강냉이재배면적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장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늘어난 면적에 맞게 종자와 영농자재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워 올해농사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알곡재배면적을 늘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기관차가 되여 그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땅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분조농사일을 하면서도 빈땅을 적극 찾아 한명당 1 000포기씩의 곡식을 심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으로 벌린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단위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사회주의경쟁조직과 총화평가사업을 잘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1.4분기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

1.4분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의 로동계급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길에서 눈부신 기적과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할 불같은 일념안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석탄공업성에서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올해의 첫 분기 석탄생산투쟁에서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년초부터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석탄이 쏟아져나온 속에 성적인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화력탄보장을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련대적혁신을 일으키며 석탄생산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켰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순천, 덕천지구의 탄광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이곳 탄광들에서는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차와 탄차, 레루, 동발나무를 비롯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보다 짜고들고 갱막장마다에서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면서 날마다 증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개천, 북창, 득장지구의 탄광들에서는 예비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굴진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존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운반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석탄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안주, 구장지구의 탄광들에서는 채탄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면서 갱막장마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강동지구 탄광들의 탄부들도 막장관리를 깐지게 하는것과 함께 채탄장수를 늘이고 전망이 좋은 탄밭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현행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천내지구의 탄광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전차, 탄차들의 순환률을 부쩍 높여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였으며 함남지구 탄광들의 로동계급도 드센 공격전으로 중요공업지구에 대한 석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온성, 경원, 명천지구 탄광들의 탄부들도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줄기찬 투쟁을 벌려 1.4분기 석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순천탄광기계공장, 덕천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보장단위 로동계급이 견인불발의 투쟁의지로 많은 탄광설비부속품과 소공구들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류성국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에서 1.4분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며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을 높이 받들고 영농부속품생산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서 대상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에서 날마다 위훈을 창조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전기기계공업관리국, 륜전기계공업관리국, 공작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맡겨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평양326전선공장,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성천강전기공장, 평양전동기공장을 비롯한 전기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었다.

륜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금성뜨락또르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등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면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농업부문에 필요한 영농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된 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안주절연물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1.4분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명흥숙

식료일용공업성에서

식료일용공업성에서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빛나게 수행하였다.

1.4분기간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불길높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당과류, 청량음료, 세수비누, 빨래비누, 치약, 치솔, 화장품, 밥사발, 국사발 등 20여가지에 달하는 중요지표들에 대한 소비품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식료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인민들에게 갖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증산투쟁을 활발히 벌리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대동강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령도업적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일념안고 계획보다 많은 식료품들을 생산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매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일용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세수비누, 치약, 치솔, 장화 등 갖가지 소비품생산을 늘이였다.

계획수행기간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들이 맡겨진 소비품생산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창성군, 회령시, 회창군, 연탄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맡겨진 소비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1.4분기 소비품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소비품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1.4분기 주체철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 일군들이 사상의 포문을 열고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생산현장에 내려간 련합기업소 일군들은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에 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대책적문제토의를 군중속에서 심화시키면서 주체철증산투쟁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생산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바로세우고 끝까지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일군들은 생산정상화의 기본고리를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설비관리에 련합기업소적인 힘을 집중하였다.

일군들은 불량개소를 퇴치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로력과 자재 등에 대한 면밀한 타산과 준비에 기초하여 설비의 중보수, 대보수를 빠른 기간에 내밀어 지난 시기에 비해 설비가동률을 훨씬 높이였다.

5월17일공장 주체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주체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었다.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한 성강의 로동계급을 시대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은 주체철생산자들이 매일, 매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 주체철증산보고를 올리는 심정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하였다.

주체철증산열풍은 교대별경쟁의 불길속에 세차게 타번졌다.

1, 2호회전로의 로동계급은 회전로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생산을 줄기차게 내밀어 3월에 주체철을 계획보다 수백t이나 더 생산하였다.

용해1작업반 김성철교대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책임성을 높여 하루에 최고 4차지의 쇠물을 뽑아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용해2작업반에서도 교대당 주체쇠물을 한차지 더 뽑아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앞뒤공정에 대한 맞물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다음교대의 생산정상화를 잘 받침해주었다.

산소용융로가 용을 쓰며 주체쇠물을 연방 쏟아낼 때 3호회전로에서도 시간당 주체철생산량을 훨씬 늘이였다.

강철부문, 조강부문, 공무부문 등 여러 단위들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일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안친선유리공장의 로동계급이 3월 30일까지 1.4분기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올해 건설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판유리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공장일군들은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우면서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생산의 기본공정을 맡은 판유리직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질좋은 유리용해물을 많이 생산하였다. 원료직장과 선광직장의 로동자들도 원료의 세척과 배합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판유리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상자직장의 초급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로동자들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상자제작속도를 부단히 높여가도록 하였다.

포장직장의 로동자들은 한장의 유리라도 허실할세라 정성을 기울이며 판유리가 나오는족족 신속히 포장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보내주었다.

공장의 후방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운영을 잘하여 로동자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기술자, 기능공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여 판유리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해결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주창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주체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제계급투쟁의지는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원쑤들의 침략책동이 아무리 악랄해진다 하여도 우리의 천만군민이 억세게 틀어쥔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우리 인민이 발휘해나가는 불굴의 정신력은 계급적원쑤들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이야말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기치가 높이 휘날릴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이 땅우에 자자손손 번영할 행복의 락원을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1

반제계급투쟁이 없이는 혁명이 전진할수 없다. 지금 미제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는 원쑤들의 책동은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사상전선만 무너뜨리면 군사, 경제 등 모든 전선이 무너지게 된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속심이다. 지난날에는 침략의 길잡이였던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오늘의 반제계급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전쟁이다.

천만군민의 반제계급의식을 최대로 높여 미제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제계급적립장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원래 혁명은 인민대중이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과 사생결단하겠다는 비장한 각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굳은 절개,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들을 격멸소탕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없이는 혁명의 길에 나설수도 없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도 없다. 혁명의 승리는 사상적견결성, 계급적원칙성의 승리이며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반제계급의식은 생명과 같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장 경계해야 할것은 사람들이 라태해지고 사상적으로 해이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변질은 곧 사상적변질이다. 계급적각성이 무디여지면 적아를 판별하는 눈이 희미해지게 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에 물젖게 되면 계급투쟁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사상적해이와 정신적라태는 사회주의를 좌절과 붕괴에로 몰아가는 시초로 된다. 인민들이 지닌 투철한 계급적각이야말로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공고한 정신적기둥이다.

사람의 진속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것처럼 계급의식의 견결성도 시련속에서 뚜렷이 검증된다. 미제는 력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였고 한편으로는 그 무엇을 주겠다고 우리와 흥정하려들면서 저들의 요구에 응해나설것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밥 한술 더 뜨자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저버릴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장구한 로정에서 승리떨쳐온 사상전의 력사가 있고 불변의 진로가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서워하는 무적의 힘이 있다.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천백배로 높여 미제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려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반제계급의식의 특징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장구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전통에 뿌리를 두고있는 억척불변의 사상감정이라는데 있다.

조선혁명은 그 개척기부터 반제계급투쟁의 피어린 자욱을 아로새기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백두밀림의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이 나왔고 세계를 경탄시킨 1950년대의 조국방위정신이 창조되였다. 그 나날에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은 꺼질줄 모르는 신념의 불줄기로 솟구치게 되였다.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 대를 두고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힌 원쑤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적개심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반제계급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뿌리로 하여 굳건히 고수되여온 불패의 보루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설수 없다고 떠벌이던 미제의 궤변을 짓부시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제를 수행하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 사회주의붉은기를 휘날리며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펼쳐올수 있은것은 기어이 자기 힘으로 원쑤들이 보란듯이 광명한 미래를 안아오려는 불변의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이 력사적인 로정에서 우리 인민은 계급적원쑤들과 맞받아나가면 승리자가 되고 한치라도 물러선다면 노예가 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사상의식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으며 반제계급의식은 대를 이어 혁명의 계주봉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제계급투쟁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지 않으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수십성상에 걸치는 반제반미대결과 계급투쟁의 치렬한 격전장들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원쑤격멸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고 적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것이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반제계급의식의 특징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일어나는 사회계급관계의 변화속에서도 끊임없이 강해지는 투철한 각오라는데 있다.

시대가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환경과 계급관계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처지도 많이 달라졌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산업시대에 와서 로동계급의 생활적기초가 달라지고 로동은 더욱더 기술화, 지능화되고있다. 로동계급대렬의 인테리화가 촉진되고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사실상 오늘의 로동계급을 산업자본주의시대나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로동계급과 결코 같이 볼수 없다. 현실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신로동의 비중이 높아져도 자본주의의 반동적성격은 변할수 없고 계급투쟁의 원리도 달라질수 없다. 오늘의 시대는 결코 력사의 주체와 반동간의 적대적모순, 계급적모순이 점차 없어지는 초계급적인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은 먼 과거의 일로 되였다느니, 현실에 따라서려면 《세계화》의 흐름에 뛰여들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의 혁명의식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장단에 춤을 추면 사상진지, 계급진지가 순간에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혁명적당이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시대의 발전과 사회계급관계의 변화를 깊이 통찰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할수 있는 혁명적집단을 내세우고 비상히 강화하는것이다. 그래야 전체 인민을 반제계급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오늘의 시대에 계급투쟁의 주역을 담당할수 있는 전투적인 집단은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전초선에 선 혁명군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은 사상중시, 총대중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이 천백배로 강화되여 반제군사전선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은 백두산총대와 같이 견결하고 투철하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자기들의 일터를 전선으로 여기고 계급적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의 신념에는 국경이 있고 자기의 혁명진지가 있다. 지식경제시대에도 우리의 계급진지는 끄떡없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반제계급의식의 특징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과 제재봉쇄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견결한 혁명적신념이라는데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 전략군부대들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기겁하여 감히 우리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을 하며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까지 동원하여 그 무슨 《결의위반》이요 뭐요 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남조선괴뢰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삐라살포와 비방중상, 깡패행위를 공공연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런 극악한 무리들을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세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발광하는 제국주의를 단호히 제압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가 채찍전술을 쓸 때에도 강경고압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당근전술을 쓸 때에도 거기에 추호도 유혹되지 않았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반혁명적공세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견결한 투쟁정신, 이것이 우리 인민의 계급의식이다.

적들이 그 어떤 제재나 군사적압박으로 우리의 자주권수호의지, 반제계급적립장을 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우리 인민이 정의의 보검인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것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반제계급의식의 최대분출이다.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핵억제력을 마련한것은 철두철미 미제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자주적존엄과 권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이 든든하듯이 우리 인민의 반제계급의식은 추호도 변색을 모른다.

사생결단하여 맞받아나가면 머리를 숙이고 굽어드는것도 제국주의이고 계급진지에 자그마한 틈이라도 생긴것 같으면 기고만장하여 날뛰는것도 제국주의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단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견결한 의지를 지니고 적들과의 총결산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미제가 《선 핵포기》, 《인내전략》을 떠들며 발악하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배심든든히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시간도 우리 편이고 정의도 우리 편이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고 하여도 우리의 계급진지는 백방으로 강화될것이며 우리는 그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2

우리의 계급진지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굳건히 다져지고 세기를 이어 더욱 공고해지고있는 승리와 번영의 초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계급진지를 강화하여 우리의 내부를 허물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이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되게 하자면 끊임없는 사상단련과정이 있어야 하며 현실을 통하여 공고히 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인간의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인민대중을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위대한 향도자가 바로 우리 당이다. 사상전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며 인민대중의 정신력발양을 위한 훌륭한 터전을 다져온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계급진지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강화될수 있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사회주의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을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워나가신다. 계급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백두의 선군령장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계급진지가 날로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사람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행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계급교양의 형식과 방법은 일정하게 달라질수 있으나 그 진수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시기에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준동이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은 계속되여야 한다. 계급교양사업의 홀시는 곧 사상적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법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사람들을 견결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사회주의교양에서 기본을 이룬다는것을 밝히고 계급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5년 4월전원회의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계급교양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여 계급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당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여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지면 사상의식도 그에 따라 개변될것이라고 하면서 사상사업을 홀시할 때에도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에 들어서는 조건에서 그들을 견결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로정은 끊임없는 계급교양사업으로 이어지고 그 위력으로 전진해온 과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든것을 계급적관점에서 보고 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인민들의 심장속에 견결한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반일, 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신데도 어리여있고 판문점의 전초병들을 찾으시여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데도 깃들어있으며 계급교양은 말로 하는것보다 눈으로 보게 하는것이 실효가 있다고 하시며 직관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가르쳐주신데도 새겨져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우리의 계급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계급교양사업은 전당적, 전국가적사업으로 더욱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비롯하여 도와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 계급교양관들이 꾸려져 인민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계급교양을 전당적, 전국가적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이 있는것이다.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은 선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길에 반제계급투쟁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선군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정신을 온 사회가 따라배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혁명방식이다.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군대의 계급적자각은 사회의 그 어느 계급보다도 견결하다. 혁명의 주력군이며 계급의 전위대인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고 전체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살며 일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정신의 최고표현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령도자를 한목숨바쳐 보위하는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이 준 과업을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해내는 결사관철의 정신, 동지를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적희생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우리 사회를 철벽의 성새로 굳건히 다지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혁명적군인정신이 꽉 들어찬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었기에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가 창조될수 있었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였다.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이 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 힘차게 내달리고있으며 과학기술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의 체육인들이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고 노래 《조국찬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와 같은 시대적명곡들이 창작되여 온 나라가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끓어번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혁명적군인정신이 시대의 숨결로 되고있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떠나 선군시대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사회주의조선에서 이룩되는 모든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이 선군의 길을 택한것이 천만번 옳았다. 선군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강한 정신력도 지니게 되였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도 이룩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있는 한 사회주의조선의 계급진지는 든든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는 물론 경제강국건설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가 인민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되게 할 때 계급진지가 더욱 강화된다는것이 우리의 계급투쟁력사가 가르치는 진리이다.

인민들의 투철한 계급의식은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애착과 수호정신의 반영이다. 자기들의 행복의 터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려는 자각으로부터 더욱 굳세여지는것이 계급의식이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목숨바쳐 지켜낼 보금자리가 없다면 용감성과 희생성이 나올수 없다. 때문에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그것이 인민들에게 가장 귀중한것으로 간직되게 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며 원수님의 령도도 숭고한 인민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지는 애민헌신의 령도이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이 당의 품속에서 한점의 그늘도 없이 생활하도록 하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오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비약과 혁신은 우리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귀중한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반제계급의식을 끝없이 승화시키는 정신적원천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땅을 주고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당과 조국을 위하여 피흘리며 용감히 싸웠고 자기의 소중한 모든것을 다시는 원쑤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다. 오늘 우리 당이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강성국가건설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는것도 바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있으며 원쑤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제도를 목숨바쳐 끝까지 지켜갈 사회주의수호정신,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계급투쟁에서의 승리는 정신력의 강자들의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며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김일룡, 박 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브라찌슬라바

슬로벤스꼬공화국 대통령

안드레이 끼스까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슬로벤스꼬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신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3월 31일 평 양

다까르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막키 쌀각하

나는 세네갈독립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리익과 념원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4월 1일 평 양

킨샤사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배침몰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4월 2일 평 양

량강땅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화폭

백두산기슭의 량강땅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다먼 내륙지대인 량강도의 삼지연군과 혜산시, 대홍단, 백암군인민들에게 수백t의 물고기를 보내주도록 하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지난해말 삼지연군인민들에게 은정어린 물고기를 보내주신데 이어 광명성절을 맞으며 사랑의 당과류도 안겨주시며 거듭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조국의 북변 량강땅인민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을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3월 30일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어려있는 물고기를 실은 렬차가 도착하였다.

량강땅의 인민들이 한없는 격정에 목메이며 렬차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낙지, 멸치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부리우고 싣는 작업이 즉시 진행되고 이어 물고기들을 가득 실은 수십대의 화물자동차들이 삼지연군과 대홍단, 백암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높고 험한 령을 넘으며 물고기를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상점들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문을 활짝 열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였다.

따스한 봄볕이 비쳐드는 환희로운 4월을 맞이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또다시 받아안은 량강땅의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같으신 우리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북받치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삼지연군 무봉마을에 사는 전쟁로병 서판세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고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백두산밑에서 동해바다의 물고기를 맛보게 되였으니 정말이지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라는 모란봉악단의 노래소리가 울리는것만 같고 한바탕 춤판이라도 펼치고싶습니다. 이게 뉘 덕입니까. 우리 원수님 덕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백두산아래 첫 동리로 불리우는 삼지연군 신무성로동자구와 하늘이 지척이여서 하루에 천번도 비가 내린다는 백암군 천수마을을 비롯한 심심산골에 이르기까지 지금 량강땅인민들은 격정에 울고 기쁨에 웃고있다. 집집의 창가마다에는 자정이 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모른다.

사랑의 물고기는 도내 수만세대만이 아니라 애육원, 중등학원, 양로원의 원아들과 보양생들 그리고 혜산시의 공장, 기업소합숙생들과 대학, 전문학교의 기숙사생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토지개간,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에게도 뜨겁게 가닿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어려있는 많은 영농물자들도 량강땅에 도착하였다.

량강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동무는 삼지연과 대홍단, 백암군과 혜산시의 주민들뿐아니라 온 량강땅인민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목메여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량강도인민들은 더 많은 일을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대로 백두의 혁명전통이 빛나는 이 땅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량강땅인민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으로, 우리 당이 펼쳐가는 인민사랑의 또 하나의 전설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혁명의 근본을 잊지 않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을것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이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뜻을 새겨안을수록 천만군민을 백두의 넋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참된 인간들로 키워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어려온다.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의 나날이 흐르고있던 주체86(1997)년 3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일군들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도 냉이무침을 드시였다는것이 아닌가. 언제인가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냉이뿌리를 캐서 반찬을 만들어 먹어보았는데 맛이 있더라고 하시면서 냉이로 반찬을 만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시였다.

산과 들에 흔한 풀뿌리가 맛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으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의 근본을 더욱 깊이 새겨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웅심깊은 뜻은 바로 여기에도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시던 백두산시절을 자주 회고하군 하시였다. 때로는 그런것을 반찬으로 드시면서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풀뿌리맛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추억깊은 이야기를 일군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냉이뿌리를 반찬으로 드신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사를 잊지 못하시기때문이고 풀뿌리를 씹으면서라도 백두에서 시작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의 갈피마다를 더듬어보시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풀뿌리맛을 잊으면 혁명을 못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자면 풀뿌리맛도 알고 쓴것도 먹어보아야 한다고 다시금 깨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마음속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길,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리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

자강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

희천3호발전소건설장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수문보관실의 콩크리트치기 완성!

—려단이 맡은 언제공사량의 90%계선 돌파!

혁신의 새 소식은 이뿐이 아니다. 이미 물길굴을 보기 좋게 관통하여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낀 이곳 건설자들은 충천한 기세로 물길굴확장 및 콩크리트치기를 본격적인 단계에서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으며 발전기실, 방수로와 조압수조, 취수탑공사에서도 련일 눈부신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것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발전소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공사장마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안은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충정의 맹세가 용암마냥 뜨겁게 굽이치였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희천3호발전소건설에서도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 완공의 보고를 제일먼저 드리자!

안춘범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총폭발시키면서 장마철전으로 주요수력구조물들의 건설공사를 질적으로 끝낼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밑에 전투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대대별, 중대별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 모든 돌격대원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건설실적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최병철동무를 비롯하여 언제공사를 맡은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철판휘틀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동신, 전천, 시중, 랑림군대대의 전투원들도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맡겨진 공사과제를 매일 평균 110%이상씩 넘쳐 수행하였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언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난다.

자강도려단 전투원들은 사상과 의지의 대결장인 물길굴공사장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물길굴안에 현장지휘부를 정하고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돌격대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였다.

물길굴의 중간구간을 맡은 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권양기와 광차를 개조하고 운반로선을 새로 증설하여 종전보다 버럭처리속도를 1.3배이상으로 높이면서 혁신의 앞장에 섰다.

물길굴의 기본확장공사를 맡은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뜻밖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조건이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함마와 정대로 확장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으며 강계시와 우시, 초산, 성간, 화평, 장강, 송원군대대의 전투원들은 콩크리트치기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비약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갔다.

맡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이다.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보다 뜨거운 충정의 마음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물길굴과 언제, 발전기실과 방수로, 조압수조와 취수구공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올해안으로 발전소건설을 기본적으로 해제낄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오늘도 자강도려단의 미더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제시한 완공날자를 순간도 드팀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와 투지를 안고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사상공세로 진격의 돌파구를

활발히 벌어지는 경제선동

본격적인 공사계절이 시작된 요즘 발전소건설장마다에 현장방송설비들이 증가되여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그 어디서나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전투적인 가요들을 장쾌하게 터치며 경제선동의 집중포화를 들이대는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현장방송설비들이다.

낮에 밤을 이어 수백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전역을 들었다놓는 방송선전차와 방송설비들의 화선선동, 경제선동의 포성은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그들을 제2의 희천정신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현장지휘부 정치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상공세를 더욱 집중적으로 들이대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열의안고 각 도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이 집중적으로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니 경제선동의 위력이 더 힘있게 떨쳐지고 콩크리트치기실적이 시작부터 전례없이 높은것이 요즘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얼마전 희천6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각 단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인민군대의 병실들 못지않게 꾸려진 평안북도려단의 침실과 세면장, 식당을 비롯한 숙소의 여러곳은 물론 공사장입구에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게 형성된 직관물들은 다른 단위의 일군들이 쉽게 걸음을 뗄수 없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들의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 원수님의 뜻대로 발전소건설에서 기어이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하려는 불같은 열정 등을 생동한 문구와 명화폭들로 묘사한 직관판들은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이들의 놀라움은 공사현장에서 더욱 커졌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 언제공사장에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졌기때문이다.

좌안의 산벼랑에 맞닿을듯 싶게 전진해간 가물막이구간안에서 벌어지는 언제기초콩크리트치기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었던것이다.

공사장을 돌아본 일군들은 희천6호발전소건설의 승리도 확정적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열백마디를 대신하는 이신작칙

얼마전 야간전투가 한창 벌어지는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으로 한대의 뻐스가 경적을 울리며 들어섰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을 태우고 수십리길을 단숨에 달려온 야간전투증원대였다.

지원물자를 안고 공사장에 도착한 이들은 즉시 질통을 지고 골재운반전투에 나섰다.

그 앞장에 현장지휘부 책임일군들이 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대로 겉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으로 삶을 빛내가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돌격대원들이 받은 감흥은 컸다.

당, 행정일군들의 진정에 고무되여 려단돌격대원들은 그날 밤 콩크리트치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또한 현장지휘부 정치일군과 함께 다른 발전소공사장으로 달려나간 최영훈, 김명철, 한형진, 리만철, 정문선, 김봉건동무를 비롯한 여러 분과성원들은 련관단위들을 여러차례나 오가며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고 이신작칙하면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리였다.

현지보도

공격전의 열풍

황해남도려단 공사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총돌격전의 앞장에 선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콩크리트치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집단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련속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굴착기들이 강철팔을 들어올리며 골재채취를 다그치고 적재함마다에 자갈모래를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기운차게 내달린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선별기에서 골재들이 여러가지 크기로 분류되여 줄줄이 쏟아져 내리며 산더미처럼 쌓인다.

세멘트와 골재운반이 쏙 앞서는 속에 콩크리트치기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진다.

만부하의 동음높이 울리는 혼합기와 양수기들,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기들과 현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 구보로 내달리는 돌격대원들로 하여 온 건설장이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송용철, 신광철동무를 비롯한 강령군대대와 벽성군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맡은 언제구간의 콩크리트치기작업을 줄기차게 다그치고있다.

그와 잇닿은 곳에서는 연안군대대의 녀성전투원들이 남성대원들과 앞서거니뒤서거니 승벽을 다투며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동무들, 승리의 정점이 눈앞에 있다.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콩크리트치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오늘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정치부장 안영구동무의 힘찬 호소에 화답하며 해주시와 옹진군, 송화군과 은천군, 장연군과 은률군대대의 전투원들이 마지막구간을 향해 총돌격해간다. 려단장 김석철, 시공과장 리영식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홰불을 추켜들고 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구보로 내달린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려는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의 강렬한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은 정녕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공격전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콩크리트치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최신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여러가지 능률높은 설비들을 창안제작하면서 맡은 조립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박명훈, 최창일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능률높은 설비들을 창안제작

수력설비조립사업소에서

이들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로 자체의 기술혁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해당 단위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면서 수리기지들의 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각종 설비제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기본과녁을 두고 현행조립과제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고있다.

지난 기간 여러 수력발전소들을 완공하는데 적극 기여한 직장장 리인성동무와 김학, 송성일, 허정국, 오영환동무를 비롯한 설비조립1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조립공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각종 설비조립과제들을 제때에 손색없이 해제끼고있다.

이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능률높은 설비들을 창안제작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서고있다.

공사장에 달려나온 설비조립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각종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발전소건설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용접기술이 높기로 소문난 리광남, 리철, 방경식, 권오철동무들이 희천발전소 1단계때부터 지금까지 맡은 용접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만사람의 존경을 받고있다.

맡은 과제를 두몫, 세몫씩 해제끼면서 언제나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탁일남, 김철학동무를 비롯한 전기작업반원들도 이동식산소발생기와 철판만곡기를 새로 제작함으로써 작업의 기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는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들의 설비조립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영예의 혁신자들

자강도려단 려단장 로력영웅 김선남동무는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지휘관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희천발전소 1단계건설에 참가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려단이 맡은 공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물길굴공사를 비롯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대상중의 하나인 희천3호발전소건설을 책임진 그는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공사장에 두개의 작업전선을 펼치고 립체전, 섬멸전을 완강하게 들이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오늘도 그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돌격투사가 되여 현장에서 전투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면서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철도성려단 평양철도국대대 대대장 라겸남동무는 강한 조직력과 함께 깐진 일본새를 지닌 유능한 일군이다.

특히 그와 이곳 대대의 전투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소한 부족점이 나타날세라 구석구석 살펴가며 맡은 과제를 손색없이 해제낌으로써 려단적으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는 발전기실기초굴착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을 맡아안고 총돌격전을 드세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대대가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는 첫 기초콩크리트치기작업과 수문기둥타입에서도 그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을 바쳐감으로써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황해남도려단 청단군대대의 리철남동무는 언제나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는 미더운 혁신자이다.

당의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희천5호발전소건설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양수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그는 대대의 기능공들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긴급히 제기된 철근가공작업을 짧은 시간안에 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김선남동무

라겸남동무

리철남동무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녀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론의 총서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은 조선녀성운동과 녀성동맹의 앞길을 밝혀준 등대이고 전진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녀성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의 사상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녀성동맹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상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시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데 동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조직들이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모든 녀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과 적들과의 총결사전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 전민항쟁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화하여 전동맹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속에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 악랄성, 취약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자본주의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오분열도식, 행사식으로 하는 현상을 없애고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생활양식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투쟁을 멈춤없이 강도높이 벌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사상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녀맹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 녀맹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자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벼모를 튼튼하게 길러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것은 논벼농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첫 공정이다.

그러면 튼튼한 모를 길러내는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

첫째로 모를 튼튼하게 길러내면 모살이기간을 단축하고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랭상모인 경우 튼튼한 모는 모살이기간이 2~3일 정도이지만 연약한 모를 내면 7일 지어 10일이상 길어진다. 또한 연약한 모를 내면 모살이기간에 죽는률이 높아져 빈포기가 생기고 포기당 이삭수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유효이삭아지확보를 최대로 담보할수 있기때문이다.

셋째로 모허실률을 줄이고 적은 모판면적으로 모내기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튼튼한 모는 싹이 나오는 시기부터 개체당 차지하는 면적과 온도, 물, 영양조건을 비롯한 모든 생육환경이 좋은 조건에서 보장되여 대가 굵고 단단하며 뿌리가 많다. 때문에 모를 뜰 때 끊어지는것이 적고 줄기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모허실률이 낮고 모살이률이 높다.

넷째로 불리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튼튼한 모는 뿌리내리는 힘이 세고 낮은 온도조건에서 모살이가 잘되고 영양물질흡수도 빠르다. 생육후반기 고온다습에 의한 뿌리썩음병, 무늬마름병에 의한 피해도 역시 약한 모일수록 크고 튼튼한 모일수록 적다.

그러면 모판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선 온도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씨앗을 뿌린 다음 싹이 돋아나올 때까지 모판의 온도를 25~30℃정도로 높여주어야 한다. 싹이 돋아나오면 어린모때부터 바람쏘이기를 하여 모가 헛자라지 않도록 단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물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물관리는 싹이 나와서부터 모를 낼 때까지 발상태 또는 포화수상태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튼튼한 모를 길러낼수 있다. 특히 싹이 나온 후에 모판토양습도를 80%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저녁에 물을 대면 모판온도가 낮아지고 모판이 습해지면서 뿌리기능이 약해지고 모가 헛자라므로 물을 대는 경우 반드시 오전에 대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모판온도가 내려가거나 김이 나오는것을 막는다고 하면서 물을 계속 대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속성모에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밑비료로 주었을 때에는 모의 생육상태를 보아가면서 류안을 평당 100~150g씩 1~2회정도 시비하여야 한다.

모판종합영양제를 밑비료로 시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덧비료는 모잎수가 1.5~2잎 되는 시기에 류안을 평당 100~150g, 2차덧비료는 모내기 10일전에 뇨소를 평당 50g정도 주어야 한다. 밑비료로 린비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였거나 날씨가 차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에는 5%의 과석용액을 만들어 모판 평당 0.3L씩 모잎수가 2.5~3잎 되는 시기와 모내기 5~7일전에 잎덧비료로 주어야 한다.

모판관리시기에는 대기온도가 낮기때문에 대용비료에 의한 영양관리대책을 동시에 세우는것이 좋다.

또한 김매기와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농장들에서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농약을 기술적요구대로 시비하여 병해충과 김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봄철기온이 낮아지면서 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할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어린모(영양랭상모)를 많이 도입하거나 일찍 모내기를 하는 단위들에서 침투이행성농약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돌피를 비롯한 여러가지 김을 잡을수 있도록 토양처리와 생육기처리도 잘하여야 한다.

농업성 책임부원 안춘갑

따사로운 해빛 넘치는 룡악산에 끝없이 울리는 행복의 노래

명산은 인민사랑을 노래한다

하늘높이 솟아있는 기묘한 봉우리에 꽃향기 넘쳐나는 푸른 숲, 가을의 붉은 단풍이 신비한 조화를 이루어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일러왔다는 룡악산에 봄이 왔다.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는 룡악산이지만 봄계절의 명산은 더욱 좋다. 골은 골마다 활짝 핀 진달래며 철쭉이 제 모습을 자랑하고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은 짙어가는 록음속에 제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여난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만 같다.

볼수록 명산인 룡악산의 절경은 꽃피는 봄날의 모습이여서 장관이던가.

잊을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체63(1974)년 4월 4일 몸소 산세험한 룡악산에 오르시여 이곳을 인민의 웃음이 가득 넘치는 유원지로 꾸릴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등산도로를 내는 문제로부터 유적의 보존관리와 휴식터들의 의자들을 만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기지와 소년단야영소건설문제에 이르기까지 룡악산을 더욱 훌륭하게 꾸릴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산발을 오르내리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룡악산은 평양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의 품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모든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입니다.》

꽃피는 봄계절에 룡악산을 탐승하는 인민의 기쁨은 끝이 없다.

맑고 청신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탐승도로를 따라 기묘한 바위며 봉우리를 바라보는 재미도 좋지만 아름다운 자연미에 조화를 이룬 못이며 정각들, 특색있게 건설된 야외휴식터들에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기쁨의 한때를 즐기는 멋 역시 그 어디에 비길데 없다.

가는 곳마다 명소이고 명소마다 야외휴식터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룡악산은 그야말로 오를수록 절승이요, 볼수록 명산이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한해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룡악산을 찾군 한다고 한다.

날마다 아름다와지는 명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뜨겁게 젖어든다.

룡악산이 이 땅에 솟아있은지도 수수천년!

그 무수한 세월 수천수만번의 꽃피는 계절이 오고갔지만 과연 우리 인민이 이 명산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것은 언제부터였던가.

룡악산혁명사적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있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펼치시여 세상에 으뜸가는 소년단야영소 세워주시고 주체조선의 새 세대를 한품에 안아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시니

아, 만경봉에 비꼈던 그날의 무지개 여기에 비쳐왔는가 평양의 명산, 룡악산에 행복의 락원 솟아났어라…》

해방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더해주는 조국의 재부로 간직하시고 이 땅의 명산마다를 근로대중을 위한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그리도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그 뜨거운 인민사랑의 헌신속에 평양의 금강산 룡악산은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휴식터로 전변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펴났다.

꽃피는 봄날에 룡악산을 찾는 인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소한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다섯해전 정월의 그날이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인민의 유원지로 더욱 훌륭히 변모된 룡악산의 모습을 보아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것은 대소한의 추위가 한창이던 여러해전 1월이였다.

고난의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의 언덕을 앞장에서 헤치신 우리 장군님이시던가.

꽃피는 봄날에 오시여 더욱 아름다와진 명산에서 잠시라도 로고를 푸시였으면 하는것이 인민의 소원이였다.

하지만 꽃피는 봄날의 그 기쁨을 다름아닌 인민에게 주시려고 정월의 맵짠 날씨에 룡악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매심한 길을 따라 뻗은 100여개의 계단을 오르시여 룡악산의 정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대봉에도 오르시고 새로 꾸린 룡못이며 법운암도 돌아보시면서 룡악산을 더욱 훌륭하게 꾸릴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바람세찬 대봉에 우리 장군님을 모신 일군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살을 에이는듯싶은 찬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바람이 세게 부는것을 보니 이 주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 일군들은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오로지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로고속에 룡악산은 또다시 자기의 자태를 일신하였다.

우리와 만났던 룡악산혁명사적지 강사 림도수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섯해전 1월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바라는 일군들에게 후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신 그날이 우리 장군님께서 룡악산을 마지막으로 찾으신 날이 될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룡악산을 인민의 명산으로 꾸려주시려고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고도 한해중 제일 추운 날에 오시여 잠시의 피로도 푸시지 못하신 장군님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가슴이 미여집니다.》

그래서이다. 이 봄날 룡악산을 찾는 사람들 기쁨에 앞서 뜨거움에 가슴젖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가는 곳마다에 깃들어있는 명산의 아름다움이여서, 대원수님들의 헌신과 로고속에 마련된 유원지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여서 인민의 가슴 더욱 뜨겁게 젖어든다.

인민사랑의 정치로 가는 곳마다에 우리 인민들의 문명생활을 위한 현대적기지들을 꾸려주시고 온 나라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룡악산은 오늘 또다시 새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진정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있어 평양의 금강산으로, 인민의 명산으로 더욱더 빛을 뿌리는 룡악산,

나날이 인민의 유원지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여가는 룡악산은 이렇게 노래한다.

진정한 인민의 수령을 모셔야 명산이 빛나고 인민의 행복도 꽃핀다고.

본사기자 리경일

룡악산의 자랑

법운암과 탐승객들의 감탄

룡악산에서 제일 유명한 력사유적인 법운암은 고구려시기에 세워지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 지었다. 룡악산의 남쪽중턱에 자리잡은 법운암은 자기의 오랜 력사와 더불어 우리 선조들의 세련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네귀가 건듯 쳐들린 합각지붕과 그것을 든든히 받치고 서있는 10여개의 흘림기둥,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두공구조와 아름다운 단청 등을 보며 탐승객들은 수천년전에 벌써 못 하나, 꺾쇠 한대 쓰지 않고도 이러한 건축물을 일떠세운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해방직후 법운암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런 절간들도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시며 보존관리를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룡곡서원앞에서

룡곡서원 역시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자기의 옛 모습을 되찾은 민족문화유산이다. 룡곡서원을 원상그대로 잘 보존해야 한다고 하시며 서원주변경치에 손상을 줄수 있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바로잡아주신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하나의 유적, 한점의 유물에서도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먼저 보시고 후손만대에 물려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람들은 등산길을 이어간다.

룡악산골짜기에 있는 서원이라는 뜻에서 룡곡서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서원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시의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건물배치 및 구조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애국의 마음도 함께 키우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아주 묘하게 자란다고 말씀하신 룡악산 은행나무는 3개의 기본줄기가 나란히 뻗어오르며 가지들이 서로 맞비빌듯이 서있는 특이한 자태도 볼만 하지만 여기에 깃든 전설 또한 깊은 감흥을 자아낸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자고 결심한 세명의 애국적인 중들이 세알의 은행씨를 한구뎅이에 묻고 전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자리에서 세그루의 은행나무가 같이 자라났다는 전설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이 나무에 깃든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 후손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준다. 이 은행나무아래에서 사람들은 한그루의 나무도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애국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말씀을 다시한번 새겨보게 된다.

본사기자

푸른 숲에 깃든 진정

룡악산에는 수백종의 식물들이 퍼져있다. 소나무와 참나무의 섞임숲으로 되여있는 산림에는 500여년 자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심은지 얼마 안되는 어린 나무들도 있다.

해마다 봄철을 계기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룡악산에 뿌리를 내리고있다.

나날이 무성해가는 룡악산의 푸른 숲은 무엇을 속삭이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좋은 인민입니다.》

요즘 룡악산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줄 모른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계절이 룡악산이 제일 흥성이는 계절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만경대를 찾았던 걸음으로 룡악산을 찾기때문이다.

(따뜻한 봄날 숲속으로 뻗은 등산길을 이어가는 환희는 얼마나 큰것인가.)

룡악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절로 찾아들었다.

이때 앞쪽에 한대의 뻐스가 와 멎었다.

뻐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두손을 허리에 얹은채 한껏 숨을 들이키는 청년들, 홀린듯 산의 전경을 부감하는 처녀들…

우리는 생각하였다. 그들의 발걸음이 곧 숲속으로 난 등산길로 이어질것이라고.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의 걸음은 등산길이 아닌 숲속으로 향해졌다. 그들의 손마다에는 나무모들이 들려져있었다. 룡악산의 곳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은 후에야 그들은 등산길에 올랐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룡악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의 심정만이 아니다. 만경대구역의 일군들과 주민들,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이런 마음을 안고 룡악산을 가꾸어가고있다. 룡악산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

이런 충정이였다.

천마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찾아낸 곰취를 안고 룡악산으로 달려와 한포기한포기 심어가던 신의주땅의 소년단원의 가슴속에 불타던 마음도, 룡악산의 자연경치에 자그마한 손상이라도 줄세라 함마와 정대로 등산길을 열고 휴식터를 건설한 돌격대원들의 신념도, 명산이라면 산수가 겸비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룡악산중턱에서 기어이 물줄기가 솟구치게 한 기술자들의 소원도.

룡악산의 푸른 숲에는 바로 이런 불같은 충정이 깃들어있다.

인민의 명산 룡악산은 이렇게 속삭여주는듯싶었다.

룡악산은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그 숭고한 뜻을 받들려는 인민들의 충정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고 높은 산이라고.

본사기자

야영의 날을 마중간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일군들과 교직원들

우리 나라의 경치좋은 곳곳에 꾸려진 어느 야영소나 다 그러하지만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해마다 평양시안의 학생들뿐아니라 최전연과 섬초소의 학생들도 이곳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다.

등산을 기본으로 하는 야영생활에서 학생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습득하며 여러가지 유희오락도 하게 된다. 야영생활기간은 오래지 않지만 그 나날은 학생들에게 한생토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는 해마다 태양절을 계기로 야영을 시작한다.

따스한 이 계절 야영소구내는 나어린 주인들을 맞을 준비로 들끓는다.

몸소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야영소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교직원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 어버이수령님,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야영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야영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의 야영소들과 함께 만경대소년단야영소도 새 세기 맞이 나게 훌륭히 꾸리도록 은정넘친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산위인들의 뜨거운 후대사랑이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일손마다에 불을 달아준다.

짧은 기간에 야영각들의 내외부보수를 끝낸 이들은 야영생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이 야영기간 학생들의 담임교원이 되여 야영생활을 지도하는 교양과 성원들이다.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 기간이 한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들은 학생들이 야영의 나날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며 야영의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의의있게 보낼수 있도록 교양사업계획과 일과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매번 그러하지만 올해에도 그들은 입소식에 뒤이어 진행할 야영생들을 위한 교직원축하공연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온 야영소가 들끓고있다. 야영소의 대문은 아이들을 기다려 활짝 열려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사랑이 야영생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치는 이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속에 야영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승철진

룡악산유원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근로자들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3일 웨.웨. 그리슈꼬브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웨.웨. 그리슈꼬브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표단성원들은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표단은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있다, 근로대중의 행복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기였다.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메아리사격관 등을 참관하였다.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일행 귀국

조몽정부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뜨톨가 공업 및 농업상과 일행이 3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구본태 무역성 부상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덕성연구발표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1돐을 맞으며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덕성연구발표모임이 3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녀맹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숙, 사동구역 녀맹위원장 최복실, 만경대구역 팔골2동 녀맹원 조혜영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건군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정치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신 후 총대를 틀어쥐시고 공화국의 국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거대한 민족사적, 인류사적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정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생명선,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솔중대를 찾으신것은 나라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이 전군에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심으로써 인민군대가 명실공히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대오로,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억세게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신것은 인민군대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세우는것을 선군정치실현의 중요한 담보로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사규률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을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시고 믿음과 정을 주시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 선군혁명동지로 키워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여 우리의 국방공업이 최첨단에로 도약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셨기에 우리의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변함없이 강화발전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기어이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막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개막되였다.

각지의 태권도선수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에서는 태권도, 바둑, 우슈, 가라데도경기들이 진행된다.

개막식이 3일 태권도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영수 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과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 태권도가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며 날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이 경기마다에서 평시에 다져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무도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은 경기성과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선수권대회 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이어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선수, 사범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내외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북남관계는 대결정책의 롱락물이 아니다

내외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지금 심각한 역풍을 맞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는 아랑곳도 없이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부추겨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들을 살포하는 용납 못할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포항일대에서 미국과 함께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사상 최대규모의 《쌍룡》련합상륙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는 등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더욱 확대하고있다.

제 집안에서는 이렇듯 반공화국도발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이 그것으로는 부족한듯 해외에 나가서까지 동족을 터무니없이 시비중상하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에만도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네데를란드를 행각한 남조선집권자는 《북핵위협》나발을 또다시 불어대며 우리의 병진로선을 주제넘게 걸고들었으며 지어 무식하게 《넝변핵재앙》설까지 내돌리며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박근혜가 도이췰란드에서 그 무슨 《통일구상》이니, 《선언》이니 하며 얼빠진 나발을 줴치다 못해 《경제난》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악랄하게 모독한것이다.

이것이 바로 얼마전 우리와 마주앉아 중대합의를 이룩하는 마당에서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테니 지켜봐달라, 믿어달라고 요란스럽게 약속하던 남측의 처사이다. 경악스러운 이 사태앞에서 누구인들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수 있겠는가.

동족의 신의가 무시되고 민족적합의가 짓밟히는 비극적현실은 참으로 험악한 사태를 예고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도발행위는 어렵게 이룩한 북남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인 동시에 북남관계를 다시금 대결과 전쟁위기의 극단에로 거침없이 몰아가는 분별없는 망동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으로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몇해째 모진 곡절을 겪고있는 북남관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외면할수 없으며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의 파국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기에 올해초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애국의 의지와 용단을 담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보내였으며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남조선당국과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룩한 후에는 이전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환경이였지만 대범하게 남측을 믿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문을 열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간주될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전면중지하는 아량도 보이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적극적인 북남관계개선노력은 응당한 결과에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문제해결의 한축을 맡고있는 남조선당국의 구태의연한 대결적자세와 립장, 외세와 공조하여 핵과 《인권》, 군사적측면 등 각방으로 우리를 압박하면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는 어리석은 환상이 바로 그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비방중상을 중지한다는 합의를 하고서도 서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더러운 인간추물들을 내몰아 가장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무엄하게 헐뜯는 천추에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을 배후조종하며 북남대결을 조장하고 우리의 관계개선의지를 깎아내리는 악담질을 쉴새없이 일삼았다. 그러고도 비렬하게 《언론의 자유》니, 민간단체들을 제약할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하는 엉터리구실을 내대며 저들의 죄악을 변명하고 합리화해나섰다.

어디 그뿐인가.

대화와 전쟁연습이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전형적인 북침공격훈련인 《쌍룡》전쟁연습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위협이며 긴장완화와 평화의 흐름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호전적광란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이번의 련합상륙훈련을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큰 규모로 강행함으로써 저들이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대결의 길을 택하고있다는 부정할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북핵포기》니, 《핵위협》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고 《넝변핵재앙》이라는 실로 황당무계한 랑설로 핵문제를 부각시키며 못되게 놀아댄것도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한사코 무장해제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그의 고집스러운 대결자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2월에 있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이룩된 북과 남이 비방중상을 중지한다는 력사적인 합의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쁨을 자아내고 국제사회의 일치한 환영을 받았다. 이 민족적합의가 철저히 리행되였다면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필경 밝은 미래가 펼쳐졌을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앞에서 집권자의 위임까지 거들며 다진 맹약을 헌신짝 차버리듯 랭정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합의이전보다 더욱 광기적으로 도발에 매달리고있다.

이렇듯 각기 최고수뇌부의 특명을 받아 이루어진 북남합의마저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도대체 북과 남이 서로 믿고 힘을 합쳐 실현할수 있는 중대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빚어낸 저들의 비리성적인 처사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자기 집권자에 대해 옳은 소리 몇마디 한것을 놓고 《비상식적》이니, 《비방》이니, 《의심》이니 하며 야단치고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으로 북남관계를 다시 파탄에로 몰아가는 남조선집권자의 행실에 경종을 울린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을 놓고 바작바작 신경질을 부리며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북남관계에 또 다른 해로 된다. 약은 언제나 쓴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리성을 되찾고 우리의 충고와 깨우침을 받아들여야 하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북남관계는 절대로 민족의 지향, 시대의 요구에 등을 돌린 반통일세력의 롱락물로 될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북남합의까지 뒤엎으며 대결의 길로 나가는것을 묵과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어느 일방의 요구나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명령이며 시대의 웨침이다.

여기에 귀를 틀어막고 반역의 전철을 계속 밟는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충고를 새겨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전 종 호

전쟁부나비들의 어리석은 침략광기

지난 3월 31일 내외호전광들이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쌍룡》의 간판을 단 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감행되는 이 전쟁연습에는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 해군기동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방대한 병력과 남조선군 지어 오스트랄리아무력까지 투입되였다. 《쌍룡》훈련의 강행과 그의 언론공개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정세를 다시금 핵전쟁발발의 위기국면에로 거침없이 몰아가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련합상륙훈련은 철두철미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이번 전쟁연습의 초점을 북침선제공격작전계획에 따른 해상과 공중에서의 립체적인 련합작전능력의 숙달완성과 더우기는 특수전무력의 타격 및 돌파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두고있다.

이번 《쌍룡》훈련의 침략적성격은 훈련에 동원된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 그리고 훈련내용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올해의 《쌍룡》훈련은 이전시기와는 대비할수 없는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되고있다. 유사시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제침략군의 선견대이며 지난 이라크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이 훈련참가무력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군의 특수작전용수직리착륙수송기 《오스프레이》 22대가 연습에 동원되여 작전수행능력을 시험하고있다. 이것을 놓고서도 《쌍룡》훈련이 무엇을 노리고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시기 《쌍룡》훈련은 해상으로부터의 침투를 위주로 하여 진행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수직리착륙수송기를 통한 공중침투작전까지 병행하여 감행되고있다. 《쌍룡》훈련은 해상과 공중에서의 립체적인 상륙훈련으로 강화됨으로써 전형적인 북침공격훈련으로서의 흉물스러운 정체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지금 내외호전세력이 벌리고있는 련합상륙훈련이 그 규모와 형식, 내용 등에서 지난 시기와는 비교할수 없는 극도의 위험성을 띠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북침상륙훈련을 감행해나섬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런 모험적인 북침선제공격훈련에 광분하면서도 호전광들은 뻔뻔스럽게도 《년례적》이니, 《방어훈련》이니 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방어》타령을 늘어놓아도 대화와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누구도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책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납못할 평화파괴행위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결코 바라지 않고있으며 추구하는것은 오로지 대결과 전쟁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압력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선제공격음모가 나날이 현실화되여가고있는 지금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천백배로 억세여지고있다. 우리가 내외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에 단호히 맞받아나가는것은 응당한 자위적권리이다.

침략자들이 지난 세기 50년대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심 철 영

해외에 나가서도 뭇매를 맞는 신세

남조선집권자가 도이췰란드행각기간 동포들의 격노한 항의에 부닥쳐 세계면전에서 망신당하였다.

3월 26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유럽지역본부, 《한민족유럽련대》를 비롯한 유럽지역 동포단체성원들은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남조선집권자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당국에 대한 격노한 심정을 터쳤다. 집회에서는 민주주의말살, 북남대결죄로 《박근혜》에게 곤장을 치는 장면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집권자가 쌍룡자동차로조원들의 죽음에 대해 외면하면서 로조탄압책동으로 로동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는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단죄하였다. 또한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남조선집권자가 부정행위에 매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집권자가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데서 북의 핵이 마치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듯이 아무런 과학적근거도 없이 무지한 망발을 늘어놓음으로써 국제적망신을 초래하였다고 조소하였다.

집회에서는 도이췰란드금속로조성원 60여명을 비롯한 이 나라의 각계층도 참가하여 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의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의 반인민적본질과 그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실태를 폭로하면서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가 구속된 로동자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불법대선, 불법대통령》, 《근혜야 가라》는 글이 씌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행진을 벌렸다. 그들은 남조선집권자의 차행렬이 지나가자 《박근혜 퇴진!》구호를 더 높이 웨치며 항의기운을 고조시켰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홈페지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은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투쟁소식들을 널리 전하였다.

본사기자

단 평 수치도 모르는 《인연》자랑

이번 도이췰란드행각기간 남조선집권자가 어느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는 남조선과 도이췰란드는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50여년전부터 남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이췰란드에서 광부와 간호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였고 도움을 많이 받았노라고 뇌까렸다. 그야말로 수치도 모르는 《인연》자랑이라 해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추어올리는 재도이췰란드동포들로 말하면 대다수가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에 《유신》독재세력의 피압과 강박에 의해 《이민》과 《인력수출》의 간판밑에 광부로, 간호원으로 팔려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력수출》정책의 희생물이 되여 탄광의 지하막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등 비참한 운명의 나락을 헤매였다.

그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빨아내여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향락을 누린것이 바로 《유신》독재자이며 현 남조선집권자이다. 그런 아픈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연》자랑을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노릇인가.

아마 《유신》깡패들을 저주하며 비명에 죽은 동포들이 그 수작을 듣는다면 무덤속에서 뛰쳐나와 남조선집권자의 뺨을 쳤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도이췰란드에서 그 무슨 《특별한 인연》이니 뭐니 하며 낯뜨겁게 놀아댄것은 《유신》독재자의 치적을 광고하는 한편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자의 망신스러운 처사는 수많은 동포들의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냈을뿐이다. 오죽했으면 그곳 동포들이 남조선집권자의 죄를 따지며 그에게 곤장을 안기는 풍자공연까지 펼쳤겠는가. 결국 그는 제손으로 제눈을 찔렀다.

최 철 순

침략적인 상륙훈련에 항의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3월 31일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원들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침략적인 《쌍룡》훈련을 규탄하여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항의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대규모상륙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요거점점령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단죄하였다.

평화협상을 해야 할 때에 군사적적대행동이 강행되는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위자들은 호전광들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난받는 《제안》, 공허한 메아리

남조선집권자가 얼마전 유럽을 행각하면서 그 무슨 《통일구상》이니, 《통일준비》니 하면서 이른바 《제안》이라는것을 내놓은것은 남조선 각계에서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이렇게 썼다.

《〈대통령〉의 〈통일구상〉에 기대가 있었으나 내용은 미흡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남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하고싶은 말만 라렬한것이다. 〈5.24조치〉의 완화, 해제 등 큰 흐름을 잡지 않고 세부사안을 라렬하고있는것도 한계이다. 실제로 그의 〈제안〉내용들은 남북고위급접촉 등이 정상화되면 다 론의할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번 〈제안〉에는 정치, 군사분야가 전혀 언급되여있지 않아 현실성을 떨어뜨리고있다.》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평하였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핵화〉나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등 어떤 제안들은 조건을 달았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 소극적인 정책이라면 〈통일준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끊어진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통일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대화없는 구상〉은 공허한 상상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새 정치민주련합 대변인도 집권자의 《통일구상》에는 《설득력있는 문제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이 집권자의 유럽행각결과에 대해 요란히 떠들면서 그 무슨 《성과》나 거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통일구상》이라는것이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출발점이나 되는듯이 사실을 외곡한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모독이며 우롱이다. 남조선집권자의 《통일구상》이라는것은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불신만 격화시킬뿐이다.

인도주의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남조선집권자가 인도주의협력으로 북남사이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떠들었는데 도대체 그가 《인도주의》니, 《신뢰》니 하는것을 입에 올릴 체면이 있는가. 지난해에 추진되여왔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대화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중단되였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주의협력의 추진을 통해 민족분렬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일념으로부터 지난 2월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개최문제를 남측의 기대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주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인도주의와는 무관》하다느니 뭐니 하며 북침총포성으로 우리의 선의에 대답해나섰다. 이런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어떻게 하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통이 큰 결단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도주의와 담을 쌓은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얼마전 남조선군의 불망나니들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우리의 평화적어선을 강압적으로 랍치, 억류하고 선원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지어 《귀순》까지 강요한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하고 떠들며 그 무슨 《산모와 유아영양지원》타령을 늘어놓음으로써 우리를 심히 중상모독한것이다.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면서 어떻게 감히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수 있는가.

북남협력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북남협력의 기본장애는 남조선당국에 있다. 남조선집권자자체가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없이는 어떤 북남협력사업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립장을 고집하고있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가 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농업협력과 관련한 사업에 차단봉을 내린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이번에 유럽을 행각하며 그 어떤 흉내를 피워보려고 북남관계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현실성도 없는 시시껄렁한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구상》이니, 《제안》이니 한것은 아무런 결과도 낼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본사기자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 불법매각소동을 규탄한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3월 29일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 불법매각소동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24일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불법적인 매각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총련을 없애버리기 위한 탄압의 일환으로서 일본정부가 몇해에 걸쳐 재판소, 정리회수기구와 야합하여 꾸민 흉계라고 까밝혔다.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번영,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해 활동하는 총련을 와해시키려는것은 몰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단죄하였다.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불법부당한 매각결정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인 동시에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모두를 적대시하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정부는 야비하고 치사한 매각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전범국가임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일본당국은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지게 될것이다.

일본정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것이 마땅하다.

미국제선제공격무기의 구입결정을 반대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3월 25일 서울 룡산에 있는 국방부앞에서 미국제선제공격무기의 구입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미국제무인정찰기와 《F-35A》전투기를 구입할것을 결정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무기들은 반공화국선제공격방안이 담겨진 《맞춤형억제전략》실현을 위한 체계구축에서 핵심으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도입되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봉쇄전략실현에 남조선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어내고 엄청난 민중혈세를 랑비하게 하는 미국제무기구입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성원들은 《전쟁 촉발시키는 무기도입 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미국제선제공격무기의 구입결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지진 련이어 발생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1일 새벽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렬도 서북쪽 100㎞ 해역에서 리히터척도로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강한 지진의 진동이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감촉되였다 한다.

그후 같은 곳에서 여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4.3인민봉기자들의 념원은 자주와 통일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 제주도4.3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66년이 되였다. 제주도4.3인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의로운 반미반파쑈인민항쟁이였으며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과시한 애국적장거였다.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1948년에 들어서면서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공고히 하고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할 흉심으로부터 《단독정부》조작음모를 꾸미였다.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특히 제주도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책동에 견결히 항거해나섰다.

이에 질겁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해나섰다. 제주도인민들의 분노와 항거성은 4월 3일 새벽 한나산의 연봉에서 대중적봉기의 거세찬 불길로 타올랐다. 그들은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단선단정〉결사반대》, 《주권은 인민위원회에로!》, 《조선통일 만세!》 등의 구호를 웨치며 폭압통치기관들을 습격, 파괴하였으며 강제해산당하였던 인민위원회들을 복구하는 등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으로 하여 제주도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5.10단선》놀음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제주도땅이 필요한것이지 제주도민이 필요한것은 아니다.》, 《전섬에 휘발유를 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 《가능한 빨리, 깨끗이 해치우라.》는 살인지령을 내리였다. 미제침략군과 1 500여명의 경찰, 3 000여명의 중무장한 《국방경비대》, 수천명의 무장테로단, 비행기들이 《토벌작전》에 투입되여 전쟁을 방불케 하는 합동살륙작전을 벌리였다. 온 섬을 불바다속에 잠근 야수들은 제주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제주도는 말그대로 피의 섬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봉기자들은 굴하지 않았으며 총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자주와 통일을 절규하였고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때까지 용감히 싸웠다. 그들은 피어린 항쟁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조국통일에 대한 꺾을수 없는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침략자와 매국노들과는 끝까지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력사의 교훈으로 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자주와 통일을 위한 제주도4.3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조선에서 외세의 식민지지배는 계속되고있으며 조국통일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정책과 그에 아부추종해온 친미사대매국세력의 외세의존,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다.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지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제패를 실현하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적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의 끊임없는 강화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해왔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2대기둥으로 하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전례없이 기승을 부리고있다. 한편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의 증강과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미제는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북침을 노린 대규모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으며 그 무슨 《평양점령》이라는것을 로골적으로 시사하면서 《쌍룡》련합상륙훈련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놓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며 국제적인 대조선압살소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려고 부산을 피우고있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판을 대폭 확대하여 저들이 직접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를 걷어치우고 동족대결에로 나가도록 극구 부추기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네데를란드에서 남조선집권자와 만나 또다시 《북핵위협》을 운운하며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수작질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우리의 성의있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조선반도에는 다시금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주도4.3인민봉기자들의 념원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치욕스러운 친미사대매국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실현에 복무하는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미제침략군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함선들의 입항을 전제로 하여 건설되고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뻔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과 세계제패야망을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이것이야말로 제주도4.3인민봉기자들의 넋을 짓밟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는 다름아닌 미국의 남조선강점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지배통치를 끝장내야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반미자주화투쟁은 침략적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는 정당한 위업이다. 자주성이 강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강점과 지배, 그로부터 초래된 분렬의 지속을 용납치 않는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온갖 민족적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제주도4.3인민봉기자들이 무엇때문에 피를 흘렸는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제주도의 항쟁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투쟁정신과 애국적기개를 살려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리 효 진

자위권행사를 짓밟으려는 미제에게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것이다

정당방위는 우리의 고유한 자주권행사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최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을 부당하게 걸고들며 《규탄》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국제적정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에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한 립장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완화기운이 조성되여가고있었다. 국제사회는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격화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방어》와 《년례》를 표방하며 벌려놓은 이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위험성이 점차 커져 세상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특히 3월말에 시작된 《쌍룡》훈련에는 전쟁연습조직자들자체가 스스로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1993년이후 최대규모의 병력이 참가하고있다. 더우기 연습내용은 감히 《평양점령》을 기본목표로 삼고있다.

우리 군대가 일어날수 있는 전쟁위험성에 대응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로케트발사는 미국의 더욱더 로골화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에 대응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그 무슨 《결의위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 《규탄》하는것은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처사이다.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지 않는 침략자 미제가 만일 추종세력들과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끌고와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광란적인 불장난소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할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위반》했다고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조작한것들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유독 우리 나라가 하면 안된다는 그따위 결의아닌 《결의》들을 만들어내고서는 그것을 구실로 우리의 로케트발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주권유린행위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결의》들을 위반했다고 떠드는데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란폭하게 침해하며 평화적위성발사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날강도적인 요구들로 일관된 《결의》에 우리가 구속될 리유가 조금도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만일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도발》로 되고 침략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이 《평화수호》로 합리화된다면 국제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평화가 더욱 엄중히 위협당하고 주권국가들이 침략자들에 의하여 란도질당하는것이 응당한것으로 되고 불가피한것으로 될것이다.

자위권은 곧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오늘의 복잡다단한 국제무대에서 자위권행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사활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자위권행사를 부정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것이 거꾸로 되는 비극적사태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대결과 충돌, 모순과 마찰이 범람하게 되고 결국에는 침략과 전쟁밖에 없는 세계로 될것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 나라들이 쓰라린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페르샤만전쟁이후 이라크지도부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은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하겠는가 하는데만 신경을 썼다.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사찰단을 자기 나라에 들여놓고 국가주권의 상징인 대통령궁전까지도 내맡기는 어리석은짓을 서슴지 않았다. 전쟁이 박두하고있는 때에 혹시나 전쟁을 피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기대를 안고 미국의 요구대로 자기들이 생산한 미싸일까지 파괴하였다. 이전 이라크정권은 대량살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얼림수에 속아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였다. 이렇게 이라크는 미국에 기대를 가지고 평화를 구걸하였지만 전쟁은 끝내 일어났다.

미제는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무력침공으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는 가로타고앉았다. 리비아사태도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나라들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테로의 희생물, 피해자로 될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에 굴복하여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차례질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며 결국에는 노예의 굴욕을 맛보는것밖에 없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평화수호》의 구실밑에 무장을 해제하고 주권국가를 전복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이 없이 미국의 각본에 놀아나 천만부당한 《결의》들을 자대로 내들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를 한사코 부정하려든다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는커녕 긴장격화와 충돌, 침략과 전쟁만을 불러오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평화는 오직 자위적권리행사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이것이 인류력사가 가르쳐주고있는 피의 교훈이다.

미국이 우리의 로케트발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켜 《규탄》하는 억지공사를 벌려놓은것은 저들에게 쏠린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자는데 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우리도 정당방위권리를 모든 수단을 다하여 행사할것이다.

원쑤들이 칼을 내들면 장검을, 총을 내들면 대포로 맞서는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막강한 자위적군사력을 가지고있는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되여있다. 미국이 유엔무대를 통해 그 어떤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든 우리의 자위적군사력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군사조치를 계속 부정하려 들다가는 미국자체가 위태롭게 될수 있다.

리 현 도

평화보장과 민족적책임감

◇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군대가 미국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한 중단거리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로케트발사훈련은 미국이 일으키려고 하는 새로운 조선전쟁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적군사훈련이였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을 걸고드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자위권행사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주의전초선을 수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국의 발악적인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을 짓부셔나가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당연하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공화국의 군사훈련은 정당한 자위적권리행사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에 사로잡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시켜 《결의위반》이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요 하면서 복닥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자위권행사를 불법으로 만드는것은 란폭한 국제법위반이며 정의와 진리에 대한 모독이고 세계를 전쟁과 충돌의 소용돌이속에 빠지게 만들려는 횡포무도한 깡패행위이다.

◇ 나라와 민족의 자위권행사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수십년간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왔다.

미제가 조선반도의 허리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장구한 기간에 걸쳐 미제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언제 한번 걷어치운적이 없으며 해마다 도발적이며 선제공격적인 전쟁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할 때에도 미국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합동군사훈련과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으며 미제의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할 각오와 의지를 백배로 다지게 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초강경대응조치로 맞받아 싸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 미제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군사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취해질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전야에로 치닫고있다. 우리는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한두번만 충고주지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통로와 공간을 리용하여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걱정한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면서 무지막지한 군사적망동을 부리군 하였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전쟁소동을 방치해둔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질수 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에 맞받아 대응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다.

만일 미국이 계속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에 매여달리는 경우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훈련도 보다 다종화되고 각이한 타격력을 가진 위력한 수단들을 동원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 길만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위권행사는 그 누구도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조선에는 미국의 압살책동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3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리며 조선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해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진보적이며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수단으로 삼고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해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은 변함없이 꿋꿋이 전진할것이다.

미국은 세기를 이어 가증시켜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종국적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미제국주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미국이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조선반도와 주변에 전개한 모든 무력을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 *

베닌, 벌가리아단체들이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3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와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선인민에게는 미국의 압살책동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가지게 된것이 자위적인 핵억제력일진대 지금처럼 미국의 핵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것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인권》소동으로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헐뜯어도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것이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사회주의국가가 존재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며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자 미제는 조선에서 손을 떼라

조선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라

세계 여러 나라 단체들이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을 규탄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과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를 비롯한 4개의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조선은 미국의 압살책동에 당당히 맞서는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조선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끝장낼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이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맹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두고 벌리고있는 미국의 제재와 고립봉쇄책동, 로골적인 군사적위협행위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위험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고있으며 조선에 대한 《인권》소동은 위험도수를 넘어 극단한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미국은 조선이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압살하려 하고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을 일삼는 고질적인 악습을 미국은 버려야 한다.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가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새 전쟁책동을 규탄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하고싶은것은 다 하면서도 조선이 정당하게 진행한 로케트발사훈련을 그 무슨 《도발》로,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고있다.

우리는 호전적이고 오만한 양키 미제의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행위들을 준렬히 규탄한다.

미국은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하며 조선이 선군으로 다지고다져온 총대의 위력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용감한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만무례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케트발사훈련이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인 권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이 조선의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하여 간섭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댈 하등의 리유가 없다.

미국의 오만과 위선은 극치에 달하였다.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의 로케트발사훈련을 구실로 새로운 강도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에 대한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비난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양키 미제는 제 소굴로 돌아가라!

최후승리는 조선인민의것이다

조미대결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국제여론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주고있다.

빼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시비하기 전에 이미 부패되여 기만성이 드러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세계에 핵참화를 몰아오고 지난 조선전쟁시기 조선인민을 무참히 학살한 미국의 범죄는 첫째가는 규탄대상이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인권을 계속 유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일제를 타승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영웅적인민이다.

얼마전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세계에 과시한것으로 된다.

미국은 조선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반제반미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최후승리를 확신한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미국식《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침략적인 군사적힘으로 조선민족모두와 조선반도를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가장 포악한 정책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끝장내는데 기본을 두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와 나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셔버릴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본사기자

제명을 다 산 아메리카제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멸망설이 나돌고있다. 올해초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이전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고 패재를 부르던 미국이 이제는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었다, 경제적쇠퇴와 침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최악의 평가, 증대되는 사회적분렬, 사회전반에 대한 특수기관들의 감시는 당국의 합법성을 파괴하였다, 대중의 불만은 증대되여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분출되겠는가를 추측해보는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요컨대 미국이 이제는 제명을 다 살고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이다. 이런 소리는 최근년간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2012년 뽈스까잡지 《뽈리띠까》도 《아메리카제국은 2020년에 종말을 고한다》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이의 수학자이며 사회정치학자인 요한이 도이췰란드의 한 신문과 가진 기자회견내용을 실은적이 있다. 여기에서 요한은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독단을 부려 세계에서 몰리우고있는것, 미국이 침략전쟁정책으로 수령에 빠져들고있는것 등을 근거로 들면서 미국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였으며 그것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2020년에 아메리카제국이 붕괴될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지난 세기 80년대에 베를린장벽이 해체되고 일부 나라들이 붕괴된다고 예측하였을 때 사람들이 궤변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일은 자기의 예언대로 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종말설의 신빙성을 주장하였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이름있는 정세분석가들도 미국이 이미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그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우연한 평가가 아니다.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심화되여 사회적위기가 커가고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있다.

미국의 한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에 미국에서 정액임금을 받는 남성의 년평균수입이 1978년보다 훨씬 적어졌다고 한다. 연구소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1983-201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 물질적부가 적지 않게 늘어났지만 그것이 극소수의 부유한자들에게 차례진 반면에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은 대폭 낮아졌다고 한다.

미국의 CNN방송도 이러한 현실을 놓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인정되여있다,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빈궁에서 헤매이는 반면에 1%밖에 안되는 특권부유층들이 사회적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사회적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기들을 파국에로 몰아넣는 당국의 부당한 정책과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고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미집권계층이 이것을 막아보려고 경찰과 특수기관들을 발동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폭압력량을 늘이고있으나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을 항의행동에로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미집권층은 자기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있다.

로씨야의 이름난 한 사회정치평론가는 신문 《쁘라우다》에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지금 매우 첨예한 력사적위기를 겪고있다. 이 위기는 지배층들이 국민의 지지를 잃었을뿐아니라 쏘련이 붕괴된 후 차지한 〈초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파국적인 매우 어려운 시기, 련속적인 동란의 시기가 미국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은 자기의 명을 다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위기에 처하였다. 미국의 시장경제는 자기의 잠재력을 이미 잃었으며 파국의 위기에 처하였다. 미국이 의거하고있는 증권시장은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증권시장의 붕괴는 어쩔수 없이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아오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미국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기본원인은 딴데 있지 않다.

세계제패의 허황한 야망실현을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며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벌려온 결과이다. 미국은 랭전종식이래 지금까지 평균 1년반만에 한차례씩 다른 나라에 대한 무장간섭과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세계 각국의 군사비지출을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군사비로 탕진하면서 핵무기분야에 해마다 500억US$이상의 거액의 자금을 쏟아붓고있다. 그 후과로 1조US$이상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채무액이 국내총생산액을 릉가하는 17조US$이상에 달하고있다. 미국이 발행하는 각종 증권이라는것은 하나의 빈종이장에 불과한것으로 되였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자, 빈곤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최근년간에는 예산지출을 충당할수 없어 정부기관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미국은 불치의 병에 걸렸다. 미국의 쇠퇴는 기정사실화되였으며 멸망의 시각은 점점 가까와오고있다.

얼마전 미국잡지 《제로헤쥐》는 《미국경제가 몰락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100가지 수자와 사실》이라는 글에서 세계화폐라고 자처하던 딸라의 국제적신용이 떨어지고 그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있다고 개탄하면서 1976년이래 대외무역에서도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여 그 액수는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천문학적수자를 기록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도 2010년에 벌써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서 력사상 최대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주요제품들과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로 되였다고 한탄하면서 대영제국이 겪은바와 같이 미국이 세계적으로 주도적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세계최대의 채무국인 미국이 《강대국》으로 남아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은 국제금융분야에서 지배적지위를 잃고있다. 서방의 금융전문가들도 미국이 《세계금융제국》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나라들에 빼앗기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미국이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기둥의 하나로 삼고있는 딸라의 지위가 허물어지고있는것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든 미국의 가련한 처지를 보여준다.

《초대국》행세를 하는 미국이 제명을 다 살고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앞으로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줄것이다.

강 철 수

안드레이 끼스까 슬로벤스꼬대통령으로 선거

슬로벤스꼬에서 안드레이 끼스까가 새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3월 29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고 한다.

로씨야에 대한 서방의 제재 반대

도이췰란드인들속에서 로씨야에 대한 서방나라들의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3월 26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63%가 서방이 로씨야에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큰 물 피 해

탄자니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한주일째 계속된 큰물로 10여명의 사망자가 나고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3월 28일에는 수도를 떠나 므완자주로 향하던 렬차가 큰물에 의해 탈선되여 1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협 조

꾸바와 웰남이 3월 28일 경제, 무역분야에서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할데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알바니아와 마께도니아는 관광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반 마 약 투 쟁

꼴롬비아경찰이 3월 29일 까리브해연안의 한 항구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배에 숨겨져있던 2t의 코카인이 압수되였다.

이로써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25t이상의 코카인을 적발몰수하였다고 한다.

시 위

—팔레스티나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의 각지에서 3월 30일 땅의 날을 맞으며 대중적인 반이스라엘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팔레스티나기발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으며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강점을 끝장낼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 3월 29일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체결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미국령사관까지 행진해가면서 당국이 미국과 무역협정체결문제를 놓고 비밀협상을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타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와 같은 시위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뽀르뚜갈인민들

ㄱ-41052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